

프리미엄마켓에서 잘 팔리는 유기농수입식품

홍콩지사

홍콩인들의 유기농식품 사랑

- 소득증가와 건강트렌드는 홍콩에서도 유기농식품시장 규모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7년 홍콩 유기농식품시장의 규모는 약 1억 600만 HKD(약 152억 7,600만 원)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5% 정도 성장하였다. 지난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향후 3%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콩 유기농 식품 전문 매장 Organic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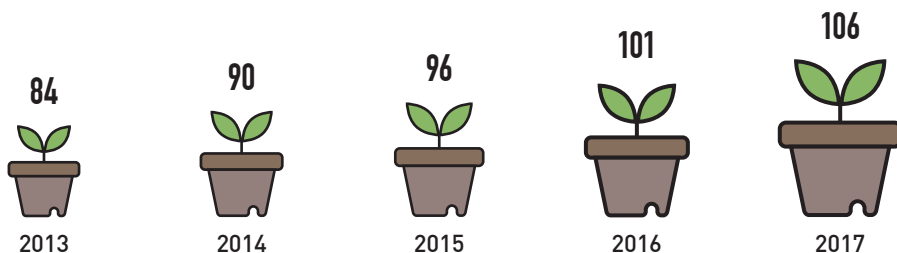
판매대상은 중상류층과 현지 거주 외국인

- 홍콩에서 많이 판매되는 유기농식품은 채소, 과일, 곡류, 시리얼, 건과일, 육류 등으로 일부 현지 재배된 채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입품이다. 유기농식품은 가격대가 비교적 높아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과 현지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의 프리미엄 슈퍼마켓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City super(시티슈퍼), Three sixty(쓰리식스티) 등 홍콩 프리미엄 마트에서는 유기농 식품코너를 따로 마련해 각국의 유기농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 유기농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친환경 유기농식품 전문매장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로부터 수입된 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20~30대 젊은 홍콩소비자를 비롯한 중국인 여행객, 외국인의 방문 비율 또한 상당히 높다. 신선식품부터 가루 타입의 스무디, 유아용 스낵 등의 유기농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진열되어 있으며 접근성을 고려해 대부분의 전문매장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주거단지의 상가에 자리 잡고 있다.

홍콩 유기농 식품 시장규모 증가 추이

(단위 : HKD million)



유기농 인증표시 확인하는 홍콩소비자들

- 중국산 불량식품이나 일본 방사능 수산물, 유전자변형 (GMO) 농산물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진 홍콩에서는 믿을 수 있는 유기농식품을 고르기 위해 유기농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 저염, 저당 등의 영양정보 뿐만 아니라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인증마크 및 NON-GMO마크 등 특정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구매하는 고객도 있다. 홍콩 내 주요 유기농인증은 ‘홍콩 유기농 인증 센터’(HKORG)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입국 원산지에서 부여받은 유기농인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각국의 다양한 유기농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홍콩에서 유통 중인 해외 유기농 관련 인증 마크



한국산 유기농식품 활발한 진출 기대

- 홍콩소비자들은 미국 및 유럽, 일본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 한국 유기농식품은 구매 정보 및 유통채널이 많지 않아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일본식품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를 지닌 홍콩소비자들이 대안으로 한국식품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한류의 바람까지 타고 있어 한국에서 건너온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심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이미 홍콩의 프리미엄 슈퍼마켓이나 수입전문점에서는 유기농 김이나 차, 유아용 과자 등 한국제품들이 소량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산 유기농 녹차, 유아용 쌀과자 제품

- 건강을 생각하며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이를 유통·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홍콩식품시장에서 유기농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기농인증 취득과정 및 식품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합리적인 가격을 부각시키는 마케팅전략을 펼친다면 우리 제품의 수출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기농 전문매장 등의 틈새 유통망 입점도 좋은 진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